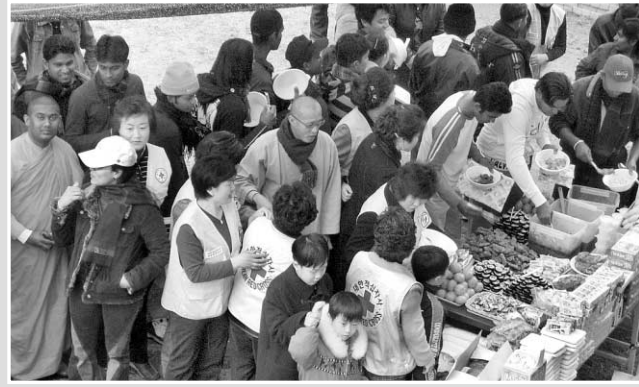


# 추운 겨울 자비의 손길로 '따뜻'



보현의 집-외국인 근로자 위로  
경주장애인복지관-김장 보시  
영남불교대-결식아동돕기 등

11월 26일 구미 마하뫼다 보현의 집이 주최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 나라 전통음식을 공양하고 있다.

병술년의 마지막 달, 추운겨울을 이  
웃과 함께하기 위한 자비의 손길이 지  
역 교계 곳곳에서 펼쳐져 훈훈함을 더  
했다.  
구미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센터  
마하뫼다 보현의 집(대표 진은)은 11월  
26일 집 앞 잔디 마당에서 구미지역 외  
국인 근로자 120여명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었다. 경주장애인  
복지관(관장 풍광) 재가복지센터는 11  
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역저  
소득 재가 장애인 70여 가구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으  
며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  
학)는 12월 2일 육불보전 4층 법당에서  
'25242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가졌다.  
또, 12월 1일에는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가 영천 수덕예식장 지하 수덕뒀  
페에서 특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이  
일일차집을,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문)은 대화예식장 커피숍에서  
재가 장애인 월동비 지원을 위한 일일

찾집을 각각 열어 훈훈한 정을 나눴다.  
특히 지난달 26일 마하뫼다보현의집  
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각 나라 고  
유의 음식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  
회 구미지구협의회(회장 최재욱)가 후  
원한 목도리가 전달돼 외국인 근로자  
들이 외로운 타국에서 따뜻한 모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  
들은 자국의 악기와 노래 연주로 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  
는데, 스리랑카의 근로자 리사트(25)는  
"엄마 같은 분들이 따뜻한 목도리를 목  
에 걸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3년째 개  
최하고 있는 결식아동돕기는 초·중  
·고 대학생들이 뜻을 모아 주변  
의 관심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작은 회  
망의 등대가 되어주겠다는 뜻으로 '동  
무들이 함께 가자 희망등대로~' 라는  
구호 속에 다양한 먹거리 정자와 각종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영남불교대학은 "25242란 2003년도  
대구광역시 결식아동 통계숫자"라며,  
"지금은 결식아동이란 단어가 없어지  
고 급식 등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  
하고 있지만 방과 후나 방학기간에는  
여전히 굶는 아이들이 많다"며 "모든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 자  
유로써 세상을 바라보고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날까지 이 행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불교대학은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결식아동  
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나눔은 곧 이웃사랑의 실천입  
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전 10시부  
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은해사 일일차  
집에서는 점심 저녁 공양시간인 12시  
와 19시에 영천국악연예협회원들의 공  
연도 펼쳐져 병술년 한해를 마감하며  
은해사 사부대중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news.com

## 일연선사 탄신 800주년 기념 제1회 군위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일연선사의 탄신 8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군위 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가  
11월 25일 군위군청 앞 광장에서 성황리

에 열렸다(사진). <삼국유사>의 집필자인  
각자선사 군위를 알리고 일연선사의 생애  
와 정신을 재조명,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군위군과 군위군의회가 주최한 것이다.  
전국마라톤협회(회장 장영기)와 인각사  
(주지 상인) 주관으로 열린 이날 마라톤대  
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2800여명의 선수들  
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는 미8군 캠프현  
리 19지원사 소속 미군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회에서 하프 30대 남자부는 폴란  
드 게스트(Paul Lancaster, 미군)가 1시간 15분  
52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하프 여  
자부는 안젤라 잭슨(Angella Jackson, 미군)  
이 1시간 24분 28초로 1위를 기록했다.  
배지선 기자

선광사 태안지장전 고불식  
대구 동구 선광사(주지 예산)는 태아영  
가 천도를 위한 전문공간인 태안지장전  
건립봉사를 위한 고불식을 11월 28일 봉  
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태고종 경북교구종무  
원장 법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  
여명이 동참했다. 선광사 3층에 들어설  
80여평 규모의 태안지장전은 태아영가  
천도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내년 봄에  
개원할 예정이다.  
주지 예산 스님은 "태아의 영혼을 달래  
고 참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태  
안지장전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 맑고 향기롭게 10주년 2007년 사업계획 발표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본부장 고  
경순)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회원  
의 밤 행사를 11월 24일 맑고 향기롭게  
대구법당에서 개최했다(사진).  
의부인사 초청없이 김상사 주지 덕  
조 스님과 15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했  
다. 행사는 삼기의, 실천강령제정, 본부  
장 인사, 덕조스님 축사, 10년간의 활동  
사진영상 상영, 모범회원 상패수여, 차  
기본부장에 임명장 수여, 케익절단,  
006년사업보고 및 2007년 사업계획발  
표로 진행됐으며, 고경순 본부장이 내  
년에도 본부장을 맡기로 하고 임명장  
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 대한불교선종 스님 7명 배출

대한불교선종(총무원장 회법)이 2001  
년 창종 이후 첫 수행자를 배출했다. 대  
한불교선종 총무원 영흥사에서 11월 25  
일 제1회 사미·사미니계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사미6명 사미니1명 등 7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또, 600여명의 재가불자들에게 대한  
대승보살계 수계식도 봉행했다. 수계식  
에는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스님과 원  
로회장 효담 스님, 총무원장 회법 스님  
을 비롯한 중도 스님과 재가불자들 700  
여명이 동참했다.  
총정 도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무릇  
계는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법규이니  
사부대중은 위로는 삼보사중의 은혜를  
값고 밑으로는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  
하라"고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 영불회 사회장 이관호 교수 지도법사 정법 스님 위촉

대구 영남대학교의료원 불교선행회  
(이하 영불회)는 이관호 교수(호흡기 알  
레르기 내과)를 회장으로 하는 제7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11월 29일 병내  
법당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  
영불회는 이날 정법 스님(지산선원)  
을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이날 고불식  
에는 영불회 회원과 불자지원봉사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1994년 창립된 영불회는 1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분기별 의료  
봉사활동과 춘계수련회, 해외의료봉사  
활동 등을 펴고 있다. 배지선 기자

##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 집보다 절이 더 좋아요

## 대구 염불선원

대구 염불선원(주지 성범)은 일흔 넘  
긴 어르신 십여 명이 스님과 함께 수행  
정진하는 절로 유명하다.  
1996년 입적한 수산 스님을 따르던  
어르신들이 모여 여생을 부처님 전에서  
수행정진하며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  
타불..."  
11월 29일  
사시예불시  
간에도 극락  
보전에서는  
어르신들의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는



염불선원은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좌  
측에는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요사채와  
스님들의 요사채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2000년 새롭게 건립한 재가불자  
들의 요사채에는 1층과 2층에 20개의  
방사가 마련돼 있는데 한 평 남짓한 방  
에는 화장실과 옷장이 달려 있어 어르  
신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돼 있다.  
"월 20만원 생활비로 따뜻한 방에 세  
끼 공양이  
제공되고,  
무엇보다  
스님법문을  
자주 들을  
수 있고 하  
루 세 번 정  
행되는 정  
근 기도에  
동참해 스

## 저렴한 생활비로 노인들 불편함 없도록 숙식 제공 법문 자주 듣고 법담 나누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다. 특히 지난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보  
름까지의 연 중 한번 있는 미타참회기도  
기간이라 수산 스님 전부터 수산 스님을  
따르던 전국 어르신들이 찾아와 여  
느 때보다 많은 대중들이 동참했다.  
오전 11시 30분, 사시기도가 끝나자  
극락보전에서는 50여명의 어르신들이  
나왔다. 연세가 70-80은 족히 넘은 어  
르신들인데, 수행정진하며 스스로를 가  
꾼 탓일까? 연세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  
복을 정갈히 갖춰 입고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아름답다. 게다가 얼굴  
에는 부드러운 인자함이 가득했다.  
"공양 시간이에요. 공양하고 가세요."  
어르신들의 말씀에는 조용함과 따뜻  
함이, 행동 하나하나에는 오랜 기간 정  
진해온 빛이 역력하다.  
류법명화(85세)보살은 염불선원에  
들어온 지 19년이 됐다. 젊은 나이에 혼  
자되어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는 법  
명화 보살은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  
왔단다. 그러다보니 효자로 소문난 두  
아들이 있는데도 집보다 절이 좋아 이  
곳에서 살게 됐다.

스로의 길을 닦아 나갈 수 있으니 이보  
다 더 좋은 곳은 없다"는 것이 어르신  
들의 이야기다. 어르신들은 새벽3시에  
일어나 새벽정진과 사시예불 저녁정진  
에 참가하고 낮에는 도반들과 법담을  
나누기도 한다.  
염불선원은 재가자들이 정토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수행 정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30년 전 수산 스님이 창  
건했다.  
성범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모  
든 범부중생은 누구나 서방정토에 극  
락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  
토에 나겠다는 원을 세워 일심으로 나  
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르며 염불삼  
매에 드는 수행을 한다면 성불하게 된  
다"며 "이것이 바로 근기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성불에 이를 수 있는 큰 길  
이며 정토수행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 東谷堂 日陀대중사 열반 7주기 추모대재

귀의 삼보 하옵고  
동곡당 일타 대중사님의 열반 제 7주기 추모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 및 여러 사부 대중께서는 두루 참석하시어 분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6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음 10월 22일)
- ◆장소 : 충북 단양 광덕사 백만불전
- ◆주최 : 동곡문도회
-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도락산 광덕사

문의처  
단양 광덕사 종무소 043) 721-4700  
●주소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터리 산30-1번지

문도 대표 包山 慧印

무비스님 인터넷 전법도량 다음카페 영화실  
<http://cafe.daum.net/yumhwasil>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신심명, 증도가, 대승찬, 임  
제록 등의 불교의 중요한 경전과 어록이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하여 무비스님의 명쾌한 강의로 동시에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방편을 멀리 벗어나서 불교 최상승의 가르침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동참하시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실 대중 합장

※ 다음카페 <영화실>에는 불교공부에 필요한 수많은 강의녹음과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